

사회



12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 꽃게를 가득 실은 용선호가 들어오자 작업원들이 위판을 위해 꽃게 상자를 내리고 있다.

■ 르포 - 꽃게잡이 한창 임회면 서망항

지금 진도는 '물 반 꽃게 반'

풍어에 위판장 중도매인들 몰려 '북적'

12일 낮 12시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북서쪽 12미일 해상.

서망항에서 지난 9일 출항한 7.93t급 꽃게잡이 어선 용선호에선 꽃게잡이가 한창이었다. 선장 김용철(41)씨와 선원 7명은 전날 바다에 던져놓은 통발을 걷어올리느라 분주히 손을 놀렸다.

용선호 선원 김성준(40)씨는 양망기를 조작하고 또 다른 선원 최현석(36)씨는 통발에 걸려든 꽃게를 깨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걸려 올라온 꽃게들은 어부들의 손에 의해 바닷물이 담긴 보관통에 던져졌다.

작업을 끝낸 용선호가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인근 바다로 이동했고 선원들은 그곳에서도 같은 작업을 했다. 출렁이는 배 위에서 선원들은 꽃게잡이에 여념이 없었다. 말 한마디 나눌 틈조차 없을 정

도로 많은 꽃게가 바다에서 건져 올려졌다. 얼굴이 검게 그을린 선원들의 이마에는 이내 땀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인상을 짜우리는 선원은 없었다. 어느덧 만선이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30분, 서망항에 귀향한 선원들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다. 잡은 꽃게를 위판장에 내려 놓는 작업을 시작했다. 위판장에는 이미 용성호의 선주와 4~5명의 중도매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용성호에서 내린 꽃게를 구매하기 위해 물려들었다.

이날 잡힌 꽃게들은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에 25kg 단위로 담겨 kg당 2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중도매인들에게 판매됐다. 용성호는 이날 300kg이 넘는 꽃게를 잡았다.

진도 앞바다 곳곳에서는 금어기 /진도=김호기자 kimho@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6월16일~8월15일)를 앞두고 꽃게잡이가 한창이다. 진도 서망항에는 연일 30척이 넘는 꽃게잡이 통발선이 꽃게를 잡느라 분주하다.

바다는 '물 반, 꽃게 반'이고, 경매가 이뤄지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망항 위판장은 '꽃게 반 사락 반'이다.

지난해 보다 배 이상 많이 잡히는 꽃게 풍년에 가격은 1kg당 5000원에서 1만원 가량 떨어졌다.

진도 인근 해역이 꽃게 황금어장으로 거듭난 것은 꽃게의 서식에 적합한 모래밭과 14~15도의 적정 수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도 수협 서망사업소 김경인(38) 소장은 "꽃게는 5~6월에 잡힌 것이 제일 맛이 좋고 4월에 비해 가격도 내려가 소비자들이 비교적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부경찰서 유치장은 전체 면적 350㎡, 12개 유치실로 되어 있으며 각 실(19.8㎡)에 8명의 유치인을 수용할 수 있다. /양수현기자 yang@

네티즌 '5·18 시각' 80%가 긍정·중립

기념재단 조사

네티즌 10명 가운데 8명이 '5·18 민중항쟁'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5·18 기념재단이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주)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조사한 결과, 네티즌 10명 중 4명(42.1%)은 5·18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36.5%는 5·18 바로알기 정보제공을 포함한 5·18기념재단 및 단체활

동 등 객관적 정보를 게시하는 '중립적인' 글을 실었다.

그러나 '5·18은 북한에 의해 일어났다'는 등의 부정적인 글은 18.4%에 그쳤다. 특히 부정적인 글 대부분은 특정 카페에서 집중 생산한 것으로, 페 뉴스를 통해 일부 네티즌들에게 유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을 향한 악의적인 글에 대한 맷글 형식의 반박보다는 항쟁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네티즌들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종기자 golee@

5·18 역사현장 걷기

17일 민주올레 행사

5·18묘지 참배객 위해

17·18일 임시버스 운행

'2010 민주올레 운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해 광주역~옛 시외버스 터미널~양동시장~광주공원~옛 광주직접사업원~옛 광주MBC~금남로~옛 전남도청까지 13곳의 5·18 광주민중항쟁 유적지를 시민들과 함께 이어 걷는다고 12일 밝혔다.

5·18 민주올레 참가 희망자는 5·18 민주올레추진위원회(062-531-0525)로 문의하면 된다. /양수현 yang@

광주시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객을 위한 임시 버스를 17~18일 이틀간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버스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서구 상무지구 5·18자유공원을 출발해 5·18 기념문화센터와 유스퀘어, 광주역, 옛 전남도청을 거쳐 국립 5·18민주묘지에 도착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동부경찰 유치장 공기살균 탈취정화기 설치

광주동부경찰이 서울 서대문경찰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유치장 내에 공기살균 탈취정화기를 설치해 유치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동부경찰서 유치장은 전체 면적 350㎡, 12개 유치실로 되어 있으며 각 실(19.8㎡)에 8명의 유치인을 수용할 수 있다. /양수현기자 yang@

다. 정화기를 설치한 후 악취도 측정 결과 설치전 253.9에서 3일이 지난 66.9(사람이 냄새를 인지하는 희석배수=100)로 크게 감소했다.

동부경찰서 유치장은 전체 면적 350㎡, 12개 유치실로 되어 있으며 각 실(19.8㎡)에 8명의 유치인을 수용할 수 있다. /양수현기자 yang@

오늘 날씨

해물 05시 31분 해진 19시 27분

달辱 04시 29분 달진 18시 52분

온통 푸르른 세상

대체로 맑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광주	맑음	9/24 C
목포	맑음	9/20 C
여수	맑음	12/20 C
완도	맑음	10/22 C
구례	맑음	5/25 C
해남	맑음	6/23 C
장흥	맑음	6/24 C
고흥	맑음	7/24 C
순천	맑음	9/23 C
영광	맑음	6/22 C
전주	맑음	6/22 C
전주	맑음	7/23 C
남원	맑음	5/23 C
흑산도	맑음	9/18 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서해 남부 일비단	북서~북	0.5~0.5m	식중독지수
만비단	만비단	0.5~1.0m	황사지수
남해 서부 일비단	북서~북	0.5~0.5m	낮음
만비단	북서~북	0.5~1.0m	주의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낮음
서해 남부 일비단	북서~북	0.5~0.5m	쌀물
만비단	만비단	0.5~1.0m	목포
남해 서부 일비단	북서~북	0.5~1.0m	여수
만비단	북서~북	0.5~1.0m	13:35 18:52

◇주간날씨

날짜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날씨						
최저/최고	10/25	13/24	14/21	15/25	16/24	16/22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금호 창업주 부인 이순정 여사 별세
차관과 딸 박경애 삼학고속 회장 부인, 박경자 금호미술관장, 박현주 대상홀딩스 부회장 등 5남3녀를 둔다.
고인은 장학·사회복지 사업에 앞장서 '적십자 봉사장 은장'(1991)과 '적십자 박애장' (2002년), '빛고을 인증대상' (2006년)을 수상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02-2227-7550)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6시, 노제는 오전 11시 광주시 금남로 금호기념관에서 열린다. 장지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 죽호학원 내 가족묘원.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북금모델의 대명사
신왕파크호텔 화 바쳤습니다.

전화 031-228-6000, 221-4101-3

무안 ↔ 오사카直航

JIN AIR · 광주MBC문화방송

매일출국 LAND BANK 펜드뱅크 아동사